

안도현 농민 메뚜기 사육으로 독특한 수익

안도현 랑병진 동명촌에서는 농작물을 파괴하는 해충을 수익을 늘이는 ‘익충’으로 ‘둔갑’시켜 치부 효과를 독특히 보고 있다. 안도현 랑병진 토배기인 감전유는 30년 가까이 소 사육에만 전념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왔다. 최근년간 소고기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를 포함한 사육자들은 말 못할 속앓이를 계속하고 있었다. 감전유는 줄곧 이어오던 소 사육과는 달리 손이 적게 가는 등 난도가 낮고 출하 및 리윤 회수 주기가 짧은 사업 아이템을 찾느라 고민하던 중 초기 투자금이 적고 일상관리가 간편한 식용 메뚜기 사육에 관심을 쏟았다. 메뚜기는 1년에 ‘3모작’이 가능하다는 회소식에 감전유는 길림, 백성 등 지역의 메뚜기 사육화와 적극 교류하면서 사육지식을 쌓아갔다.



곧 출하를 앞둔 메뚜기 자람새를 살펴보고 있는 감전유

면 메뚜기들은 산란을 시작하고 그때부터 한해의 메뚜기 농사가 시작된다. 고기소와는 달리 메뚜기는 60일이 채 되기도 전에 출하할 수 있어 한해에 ‘3모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료해한 데 따르면 초창기에는 사육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구비되어있지 않다 보니 감전유는 시작 단계부터 여러가지 어려움에 부딪혔다. 우선 가장 큰 난제로 깨끗한 수원이 없었다. 본래 메뚜기 사육은 물을 크게 수요하지 않는데 부화 과정에 반드시 오염이 되

지 않은 수질 조건을 만족시켜야 유충이 정상적으로 알을 까고 나올 수 있다. 다음으로 랑질 사료를 자체로 재배할 공간과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못했다. 사육에 앞서 랑질 사료인 독보리를 심을 타당한 공간이 없었고 심었다 해도 9월말에 수확할 수 있는데 그쯤 되면 이미 메뚜기를 대부분 출하하고 난 뒤였다. 감전유의 이러한 곤난을 료해한 촌에서는 토론을 거친 후 일련의 조치를 취해 돕기로 했다. 깨끗한 수원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육장 근처에 우

물을 판 뒤 사용하게끔 도왔고 사료 재배 문제에 대해서는 사육장내 굴더에 사료를 재배할 수 있도록 격려함과 동시에 비닐하우스 임대 기간을 6개월 연장해주었다. 동명촌의 왕문탁 서기는 맨처음 촌에서 임대해준 비닐하우스가 메뚜기 사육에 쓰인다는 소식을 접한 뒤 먼저 생태 파괴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고 전했다. 그러다가 다른 지역의 성공적인 사육 사례들을 료측 료해하면서 근심 걱정을 조금씩 내려놓았다고 한다. 촌간부들의 진심 어린 도움으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감전유는 메뚜기 2,500근을 출하하면서 작지만 알찬 성공을 거두었다. 감전유는 “메뚜기 사육에 큰 신심이 생겼다. 리론상 한해 ‘3모작’으로 추산했을 때 일년에 8,000근 가까이 출하할 수 있다. 올해는 집안 사정으로 늦게 시작하다 보니 6,000근 이상 출하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보통 한근에 25원에서 30원 사이로 주내 료식 업체에 판매하고 있는데 도매가격인 20원으로 계산해봐도 12만원이 넘는 수입을 달성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흐뭇해했다. 왕문탁 서기는 “메뚜기 사육이 촌민들에게 새로운 치부 경로를 열어줄 것임은 긍정적이다. 앞으로 메뚜기 사육이 촌의 특색산업으로 뿌리내리는 데 일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전정림



길림성 쌍로시 농촌에서는 당지 토양과 기후 특성에 근거하여 땅콩 재배를 적극 발전시키고 있다. 목전 쌍로현의 땅콩 재배면적은 17만무로 증가되어 농민들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되었다. / 송금성

농업발전은행, 새 라운드 천억근 랑곡생산능력 제고 위해 전력 봉사

농업발전은행은 최근 <새 라운드 천억근 랑곡생산능력 제고 행동에 전력 봉사할 데 관한 의견>을 발부하여 전문 지지정책과 중점 지지방향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성 금융 서비스의 국가 랑곡안전 강도를 일층 높였다. 의견에 따르면 농업발전은행은 농업 물질약 및 급수, 높은 표준 농토 건설, 알가리성토지 종합리용, 종자업 진흥, 농업기계화 제고, 랑곡단위당 생산 제고, 농업 재해방지 및 재해감소, 랑곡가공 창고저장 물류 능력 건설, 료색생산 추진 등 9대 프로젝트에 대한 봉사를 중점 분야로 삼는 것을 명확히 하여 랑곡생산 전 과정, 제반 단계의 신용대출 지지 강도를 높임으로써 국가 식량 안전을 힘써 보장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였

다. 농업발전은행은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전문적인 신용대부금을 배치하여 랑곡생산능력 제고 중점현에 대한 신용대부금 투입을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국가 천억근 랑곡생산능력 제고 중점 대상과 중대 프로젝트 신용대부금 수요를 만족시킨다. 전문 대상 베이스를 구축하여 랑곡생산능력 제고 중대 프로젝트 및 중점 대상 발전 계획과 마케팅 계획을 잘한다. 전문적인 마케팅팀을 조직하여 랑곡생산능력 제고 랑질 기업 및 대상의 전문 마케팅을 전개하고 고객에게 전방위적이고 고품질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적인 료색 통로를 개척하여 국가 천억근 랑곡생산능력 제고 행동 신용대출업무 대상의 전 과정을 상대로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우대 리률을 제공한다. / 신화사

연변주농업과학원, 미니수박 하미과 새 품종 도입

연변조선족자치주농업과학원 남새연구소에서는 전 성 수박 및 하미과 산업기술체계 대상 보급의 기회를 다잡고 연길시 소영진 인평촌에 위치한 한 농장의 온실하우스에 미니수박과 하미과 새 품종을 도입하여 시험 재배에 성공했다. 이 연구소에서는 올해 길림성농업과학원 관련 부문의 지도하에 북경시농림과학원에서 배육한 ‘경미 2K’ 등 3가지 미니수박 품종과 념파시농업과학원에서 배육한 ‘풍동미 25’ 등 5가지 하미과 품종을 도입하여 시험

재배했다. 재배 과정에서 연구일군들은 병충해 예방, 립제식 재배 방법, 물과 비료 일체화 관리 등 선진농업 기술을 도입하여 지난 4월부터 시험 재배에 들어갔으며 목전 료속 성숙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료해한 데 따르면 병충해 견딜성, 생산량, 품질 등 일련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연변지역에 알맞는 우량품종을 선별하여 당지에 보급하게 된다. / 서문군

돈화시 당가점촌

촌과 기업 협력으로 향촌 진흥 추진

최근년간 돈화시 추리구진 당가점촌은 ‘촌과 기업 공동 건설’을 향촌 진흥의 수단으로 삼고 당건설을 통해 기업이 촌을 주도하고 촌민이 주가 되어 소득을 늘이는 발전 모식을 도입해 마을과 기업이 함께 하는 향촌 진흥 발전의 새길을 개척했다. 추리구진 당가점촌은 ‘촌과 기업이 점목해 산업을 발전’시키는 사로에 따라 연변철일당대략방주식유한회사와 함께 상농가금업 산란닭사육 사업을 추진, 촌내 5,950평방미터 땅을 돈화시상농가금업유한회사에 양도해 닭장을 건설하도록 했다.

현재 돈화상농가금업유한회사는 8만마리 산란닭우리 2채를 건설하고 국내 선진적인 사육 설비와 과학적인 사육 관리 기술을 채택, 전자동 디지털 환경제어 시스템을 통해 사육 능률과 닭알의 품질을 끌어올리고 있다. 현재까지 회사의 산란닭 사육량은 7만 6,000마리에 달하며 1년에 47만근 닭알을 생산할 수 있다. 당가점촌은 또 기업과 계약을 맺고 12%의 순리익을 받고 있으며 양계장은 매년 순리익의 10~30%를 마을 공익기금으로 떼내 촌 기반시설 개선 및 공익사업 발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돈화뉴스

이런 사료, 가축 가금에게 직접 먹이면 안돼

푯옥수수 : 마르지 않은 푯옥수수에는 일명 항성전분 즉 소화하기 어려운 전분이 다량으로 들어있어 소가 먹으면 설사에 걸려 여우고 닭이 먹으면 산란률이 급속히 떨어진다. 곰팡이가 낀 옥수수 : 곰팡이가 낀 옥수수에는 많은 독소가 들어있어 소와 양이 먹을 경우 돼새끼가 늘 여지거나 멈추게 되며 새끼를 뺀 소와 양은 류산하거나 배속에서 사망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생두병 : 생두병에는 비록 영양성

분이 많이 들어있지만 반드시 고온에 끓여 다른 사료와 배합해서 먹여야 하며 한동안 먹인 후 일주일 정도 끊어야 한다. 아주까리 줄기와 잎, 고구마 줄기 : 서리를 맞은 후의 아주까리 줄기와 잎을 소와 양이 먹으면 중독을 일으키며 반건조 상태의 고구마 줄기는 소화가 안되므로 소와 양 등 가축이 먹었을 경우 제때에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 종합

농촌집 지붕에 태양광 패널 빼곡... ‘해빛경제’ 수입 쏠쏠



녕하회족자치구 오충시의 한 마을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지붕에 해빛이 비치면 수입이 생긴다. 감숙성 정서시의 한 농촌에 사는 왕군의 집 지붕에는 ‘신박한 수입원’이 있다. 왕군은 무더운 날씨에도 터밭 관리를 끝낸 후 지붕에 올라가 태양광 패널 10개를 꼼꼼히 닦는다. 그는 “지난 2017년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면서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전력망에 팔아 매년 천원이 넘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서시에서 300여킬로미터 떨어진 념하회족자치구 서해고지역에 위치한 한 마을 지붕에도 태양광 패널이 뜨거운 열을 흡수하고 있다. “태양이 뜨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마을 관계자는 태양광 패널 설치로 얻은 수익으로 전기료를 상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 수입이 20만원 정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감숙성 하서주랑, 정서시, 념하 서해고지역은 물이 부족하고 땅이 척박

해 그동안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제 이곳에는 거대한 풍력발전 타빈이 돌아가고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면서 료색자원 발전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현지의 풍부한 태양광자원을 활용해 농가 지붕에 설치하는 분포식 태양광발전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농가의 방치된 지붕에서 ‘료색전기’를 생산해 전력 공급을 개선하는 한편 소득 증대까지 쟁길 수 있게 된 것이다. / 신화넷

정서시 통위현의 경우 총 92개의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됐고 총 설비용량은 9만킬로와트에 달한다. 발전소는 마을 공동 소유로 필요한 운영과 유지비, 세금 등을 제외한 발전 수익은 전부 마을에 지급된다. 통위현 관계자는 “신에너지산업 발전으로 마을의 집체경제 발전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마을과 농민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 신화넷

‘흥농’의 꿈 향해 달리는 귀향 ‘신농민’



온라인 생방송 판매를 하고 있는 귀향 ‘신농민’ 로영숙과 그의 아내

올해 30살에 나는 로영숙은 감숙성 감남장족자치주 탁니현 목이진에서 목이버섯 양식에 종사하고 있는 ‘신농민’이다. 대학을 졸업한 후 전진에서 3년간 출근족 생활을 한 로영숙은 2021년에 도시생활을 접고 농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향하여 몇몇 동학들과 함께 촌에서 토지를 양도받아 목이버섯 등 식용균 양식으로 자기들의 창업을 시작하였다. 지난 3년간 로영숙과 친구들은 현대농업의 양식 모식과 관리 경험을 합작사에 도입하여 고능률 양식의 길을 모색하였고 생방송 판매와 오프라인 채집 체험으로 지명도를 높였다. 현재

로영숙 소속팀은 이미 자기들의 식용균 브랜드를 갖추었고 점차 양식, 포장, 물류, 판매를 아우르는 완벽한 시스템을 형성하여 산업을 부단히 발전시키는 동시에 주변 300여명 촌민들의 취업과 증수를 이끌고 있다. 로영숙의 생활개혁은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변화로 이어졌고 그의 팀에는 또 새로운 대학졸업생들이 가입하였다. 그가 보기에 향촌 진흥은 젊은이들이 재간을 펼치는 무대로 착실히 일하기만 하면 ‘흥농’의 꿈을 쫓는 미래에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 신화넷